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 감소... 미 노동시장 여전히 견조
- The Economist: 미국 등의 인플레이션 왜 멈추지 않을까?

#### [미국 물류]

- WSJ: 미 국내 화물 운송 피크 시즌 저문다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경제전망 더 비관적"...연준 베이지북에 '경기침체' 언급 늘어
-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에 근로자 52% "부업 하겠다"

#### [비즈니스와 업계 동향]

- WSJ: 골드만삭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업 전면으로
- CNBC: 월가, 자동차 업계 "수요 파괴" 징후 눈여겨본다
- CNBC: 샌프란시스코 스타트업체, 인터스테이트 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네트웍 개발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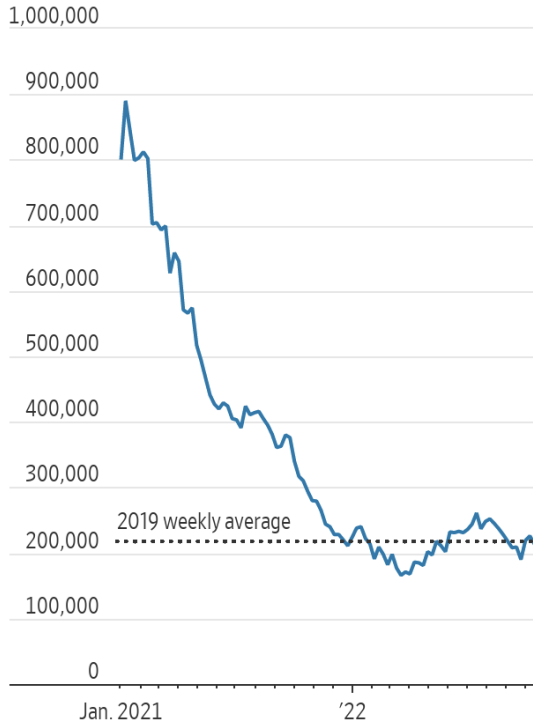
### [미국 경제]

#### WSJ: Jobless Claims Fell Last Week in Still-Tight Labor Market

#####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 감소... 미 노동시장 여전히 견조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노동 시장은 아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지난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22만 6천명에서 지난주 21만 4천명으로 줄었다.
- 이 수치는 올해 초 보다는 증가했지만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2019년 팬데믹 이전 주간 평균 21만 8천 건에 근접한 수준으로, 미국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해고가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 하지만 9월 생성된 일자리는 26만 3천개로 연초보다 줄어들었고,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들이 해고를 통한 인원 축소를 시작하는 등 점차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nitial jobless claims, weekly**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U.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via St. Louis Fed

WSJ 기사

**The Economist: Why inflation refuses to go away**  
**미국 등의 인플레이션은 왜 멈추지 않을까?**

- 언뜻 보기에는 소비가 강하고 금융정책이 타이트하지 않을 경우 물가가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IMF 보고서에 따르면 3가지 요인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충격, 임금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 우선 충격.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때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들은 재정 지원을 했다. 이 기간 가계들은 소비 패턴이 갑자기 상품으로 갔다가 서비스로 바뀐 것. 이런 혼란으로 가격이 급등했는데, 작년 미 물가는 팬데믹 때 대비 40%, 유럽은 66% 올랐다. 이는 생산 문제와 높은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여기다 가계에 대한 현금 부양이 물가 상승에 큰 몫을 했다. 여기다 러시아 침공이 있었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예측하지 못했다.
- 달러 가치가 10% 상승할 때 다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상승폭은 평균 1% 오르고 수입 의존도가 심한 국가들은 더 피해를 입는다.
- 또한 임금 관련해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오르지만 팬데믹 초기에는 이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다. 현재 노동 공급은 별로 문제 요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강한 고용과 저실업률 때문에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번 IMF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에서 임금 상승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정도로 강하지 않다는 것.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세번째로 기대 인플레이션에 미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와 임금 협상에 영향을 준다. 이럴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중앙은행들은 더욱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The Economist기사

### [미 국내 물류]

#### WSJ: Freight Operators' Peak Shipping Season Is Crumbling 미 국내 화물 피크 시즌 저문다

- 과도한 재고를 갖고 있는 미 소매업체들이 해외 주문을 취소하고 화물 운송업체들이 연말 시즌에 화물 운송량 예상치를 줄이면서 화물 운송 피크 시즌은 내려앉고 있다.
- 일반적으로 매해 4분기에는 수요가 많지만 이번에는 수요가 줄면서 운송비도 줄어들고 있다.
- 특히 아시아로 부터 오는 미 수입물량 성장세가 식고 있는 것이다. 소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분한 재고를 갖는 업체들로부터의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 트러킹 회사 J.B. Hunt Transport Services가 2분기에 매출이 38억4천달러였으나 3분기에는 비슷한 매출을 기록했다. 더우기 향후에는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경제전망 더 비관적"...연준 베이지북에 '경기침체' 언급 늘어
- 연합: 미국 인플레이에 근로자 52% "부업 하겠다"

### [비즈니스와 업계동향]

#### WSJ: Goldman Sachs Embeds Software Developers Deeper Into the Business 골드만삭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업 전면으로

- 골드만삭스는 화요일 발표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을 사업 전면으로 불러들일 것임을 밝혔다.
- 골드만삭스는 최근 몇 년간 안정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고객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요한 분야가 된 것이다.
- 조직 개편에 앞서 엔지니어 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새로운 구조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부서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WSJ 기사

### CNBC: Wall Street eyes auto industry earnings for signs of 'demand destruction'

#### 월가, 자동차 업계 “수요 파괴” 징후 눈여겨본다

- 월가의 투자자와 분석가들 사이에서 자동차 업계에 “수요 파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3분기 자동차 업계의 소비자 수요가 악화되는 징후를 예의주시 하는 상황.
- 2020년 초 팬데믹이 시작되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들은 공급망 문제로 인해 수요가 신차 공급량을 앞지르면서 기록적인 수익을 냈다. 하지만 UBS에 따르면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수요는 줄어들어 차량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며 내년 미국과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달 중고차 딜러 업체 CarMax가 점포당 판매량이 8.3%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월스트리트가 예상한 3.6% 감소세보다 더 큰 폭이었다.

#### CNBC 기사

### CNBC: TeraWatt announces first interstate EV charging network for trucks

#### 샌프란시스코 스타트업, 인터스테이트 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개발

- 샌프란시스코 신생 업체 TeraWatt Infrastructure는 오늘 목요일 대형 및 중형 트럭이 이동하는 인터스테이트 10 고속 도로 선상에 전기차 충전센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충전 센터는 1백50마일 마다 설치되며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쪽에 가장 가까운 출구에서 1마일 보다 짧은 곳에도 설치한다는 것이다.
-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양당이 통과시킨 인프라법과 관련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 주 정부에 5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안 발표후에 나온 것이다.

#### CNBC 기사

####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아직 튼튼한 美 노동시장...실업수당 청구건수 1만2천건↓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 튼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0월 9~1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주보다 1만2천 건 감소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본 전문가들의 예상(23만 건·월 스트리트저널)을 깨뜨렸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9만 건으로 2만1천 건 증가했으나, 이는 2주 전 기준으로 집계된다.

허리케인 '이언'이 강타한 플로리다주에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실업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로 복귀하면서 지난주 전체 청구 건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